

‘조두순 목격담’ 잘못된 사진 퍼져

사위 “조두순 목격담 사진은 장인·장모님…더 이상 퍼나르지 말길”

경찰 “조두순, 3개월간 외출한 적 없어”…수사여부 적극 검토 중

법무부 “출소후 보호관찰관과 1차례 마트 갔을 뿐, 이후 외출 없어”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두순 목격담으로 올라온 게시글에 첨부된 사진.

국내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을 대형마트에서 목격했다는 내용의 확인되지 않은 게시글이 올라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에 해당 게시글에 등장한 노부부 사위로 추정되는 또 다른 네티즌이 '사진 속 인물'이 조두순이 아닌 자신의 장인과 장모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경찰은 해당 사진을 최초 게시한 네티즌이 어떤 경로로 이를 올리게 됐는 지 내용 파악에 나서는 등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2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실시간' 조두순 마트에 뺨타 ㅋㅋㅋㅋㅋㅋㅋ'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노부부로 보이는 남성과 여성 등 2명이 찍힌 사진과 함께 '전자발찌 보이냐 ㅋㅋㅋ'이라는 문구가 있었다.

사진 촬영자는 마트에 추정되는 장소에서 노부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진을 찍은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에는 노부부가 끌고 있던 쇼핑 카트에 담겨져 있는 주류상자 등도 보였다.

이들 본 네티즌들은 사진 속 노부부를 향해 노골적인 욕설과 함께 각종 비난을 댓글로 달았다.

상황이 커지자 이날 오전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에 '사진 속 인물은 조두순이 아닙니다'라는 내용의 반박 게시글이 올라왔다.

조두순 목격담 사진에 등장한 노부부의 사위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 네티즌은 "우선 사진 속 인물은 조두순 부부가 아닙니다. 평생 일반 하시다 은퇴하시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시는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이라며 "쓰고 계신 모자는 제가 사드린 모자이고 노란 아디다스 운동화도 제가 사드렸"고 내용을 바로잡았다.

이어 "장인어른은 일하시면서 하지 못했던 머리를 길러보시겠다며 머리를 기르고 계신 상황"이라며 "지금 우리 장모님은 심장이 떨리고 손이 떨리셔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신다"고 심경을 전했다.

또 "이런 일이 우리 가족에게도 생길 수 있는 것에 다시 한 번 지금 이 시대의 공포를 느낀다"며 "더 이상 퍼

나르시지 말고 후시나 글을 본다면 아니라고 적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인터넷에서 사실이 아닌 게시글이 확산되자 경찰도 사실과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다.

조두순의 거주지를 관할로 두고 있는 안산단원경찰서는 "조두순을 보호관찰하는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는 해당 시간대 조두순이 외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추가로 최근 3개월간 외출한 적도 없다"며 "조두순 주거지 인근에서 범죄 예방을 담당하는 경찰 근무자들도 조두순의 외출 사실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두순이 아닌 시민을 오인해 사진을 찍어 온라인에 올린 것으로 보인다"며 "관계기관에 내용을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닌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해당 사진을 온라인에 처음 올린 게시자에 대한 수사 여부도 적극 검토 중이다.

이 사진이 촬영된 장소인 마트를 관할로 둔 안양동안경찰서 측은 사이버 수사팀에 어느 경로로 해당 사진이 찍힌 것인지 내용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내린 상태다.

법무부도 이날 홈페이지에 설명자료를 배포하면서 "전자감독대상자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12일 출소 이후 한 차례 보호관찰관과 동행해 생필품 구입을 위해 거주지 인근 마트에 출입한 것 이외에 4월 1일 외출사실 및 주류를 구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조두순 출소 이후 전담보호관찰관 출장지도 81회, 통신지도 4회, 행동관찰 400회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광주동부소방,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최우수' 기관 선정

광주 동부소방서(서장 최정식)는 광주광역시 2020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3월 31일 밝혔다.

평가는 2020년도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에 대해 광주지역 5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은 화재발생 빈도가 높은 11월부터 2월까지 4개월간 효율적인 예방정책과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매년 추진하는 정책이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화재취약시설 중점 안전관리 ▲관계인 자율 안전관리 기능 강화 ▲생활 속 화재 안전 기반조성 ▲현장 대응력 강화를 통한 시민 생명 보호 ▲소방서별 자체 특수시책 등이 있다.

특수시책으로는 화재대피 시 파난약자들의 비상탈출이 용이하도록 관내 요양병원 2개소를 선정해 패니바와 생명망 등을 설치하였으며, 전통시장 화재예방 캠페인 송을 제작·송출하여 시장상인과 시민들을 접촉하지 않아도 화재예방 행동요령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등 여러 가지 특수시책을 추진하며 지역 내 화재 안전 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정식 동부소방서장은 "전 직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도 시민 일상의 안전을 지키고, 화재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광양소방-POSCO 광양제철소 주택화재예방 업무협약

광양소방서(서장 최현경)는 3월31일 POSCO 광양제철소와 상호 업무협조를 통해 화재 취약계층 안전망을 확보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으로 시민의 생명 보호와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업무협약(MOU·사진)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POSCO 광양제철소는 지역사회 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화재취약계층의 안전 확보를 위해 소화기 및 감지기 각 1,650대를 후원하였으며, 광양소방서는 '안전한 광양' 실현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등 주택화재예방 환경 조성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지용 POSCO 광양제철소 소장은 "이 협약을 통해 경영이념인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을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안전 문화 확산, 나아가 기업과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국민의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최현경 광양소방서장은 "지역사회의 사회취약계층 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을 위해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어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번 지원을 계기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양=심종섭기자

무안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무안경찰서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30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총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므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류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무안=이기성기자

폭력조직원 운영 '불법 도박 술집' 적발...13명 송치

3개월간 6000만 원 거둬들여...사행성 도박 횡행

광주의 한 도심 변화가에서 폭력조직원과 추종세력이 운영하는 술집이 도박 등 사행성 행위를 일삼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술집 영업을 빙자해 도박 행위를 일삼

은 혐의(도박 개장)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또 도박장 운영에 관여한 공범 4명과 사행성 놀이를 한 술집 손님 8명도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송

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광주 광산구 한 유흥가에 카지노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술집을 차려 도박 행위를 일삼아 6000여 만원의 운영 수익을 거둬들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카지노 형태로 꾸며진

해당 술집에서는 수 십만원의 판돈이 오가는 카드 게임 등이 펼쳐졌고, 게임을 통해 따낸 칩을 환전하는 등의 불법 도박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도박장' 형태로 운영된 술집은 국내 폭력조직원인 A씨를 중심으로 폭력조직 추종 세력 등을 모아 이 같은 영업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동취재본부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